

명말청초·조선중후기의 유람문화와 愚潭 丁時翰의 《山中日記》

권석환*

◁ 목 차 ▷

- I. 서론
 - II. 명말청초·조선 중후기의 유람문화
 - III. 유람 환경의 변화를 통해 본 《山中日記》
 - IV. 人文地理的 관점에서 본 《山中日記》
 - V. 유기의 표현형식으로 본 《山中日記》
 - VI. 결론
-

I. 서론

愚潭 丁時翰(1625 인조3년—1707 숙종 33년)은 조선 중후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면서 산수 유람가이다. 《山中日記》은 우담이 62세부터 2년 여 동안 결행했던 유람에 대한 기록이다.

《산중일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閔泳珪(1967)가 그 문화적 가치를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金相永(1997)이 그 내용을 분석하였고, 吳周學(2006)과 李鍾求(2007)는 석사논문을 통해 遊山文化 및 유람문화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원주시가 편찬한 《愚潭 丁時翰 研究》(2009), 이기용 편 《丁時翰 性理學 研究》(2010) 등에 수록된 몇 편의 글에서 부분적으로 《산중일기》를 언급하였다. 특히 김성찬 등이 번역 편찬한 《山中日記(상, 하, 영인본)》(2012), 정범진 편역의 《愚潭年譜》(2015)는 우담의 유람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연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상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그가 살았던 시대인 명말청초와 조선 중후기(대략 17세기)의 유람 환경의 변화 과정을 통해 《산중일기》를 조명하고자 한다. 《산중일기》에 반영된 내용적 특징을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통 유기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산중일기》가 어떤 문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려고 한다.

II. 명말청초·조선 중후기의 유람문화

먼저 《산중일기》가 탄생한 시대적 환경을 개괄해보자. 당시 중국은 明天啓 5년에서 清康熙 41년까지로서, 이른바 ‘明末清初’에 해당한다. 통치민족이 漢族에서 滿洲族으로 바뀌었고, 朱子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陽明學이 등장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良知’와 ‘性靈’을 강조하였다. 한편 朝鮮은 仁祖 3년에서 肅宗 33년까지로서,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胡亂으로 민생이 파폐되었고, 주자학의 극심한 분파와 교조적 해석으로 黨爭이 극렬했던 시기이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서양의 과학문명이 동점하는 등 동서간의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고, 중세에서 근대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유람의 환경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점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유람이 명 중후기에 이르러 유행하기 시작했고 晚明 시대에 이르러 최고 극점에 이르렀다¹⁾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²⁾

첫째 유람을 기록한 游記의 창작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王士性(1547-1598)·徐霞客(1587-1641)·張岱(1597-1679) 등 전문 유람가들이 활동하였고, 왕사성의 《五岳游草》·장대의 《陶庵夢憶》, 서하객의 《徐霞客游記》 등의 유기집이 출판되었다. 개별 작품으로는 《四庫全書》 등에 수록된 문집 안에 131명의 작가가 824편의 游記 작품이 들어있다.³⁾ 그리고 각 문집에 분산되어 있는 유기를 모아

1) 周振鶴, 〈從明人文集看晚明旅游風氣及其與地理學的關係〉, 《復旦學報》2005年 第1期.

2) 이하는 저자의 〈중국전통유기의 핵심시기〉: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9집, 한국한문학회, 2012.6)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한 何鏜(1507-1585)의 《古今游名山記》, 慎蒙의 《天下名山諸勝一覽記》, 王世懋(1536-1588)의 《名山游記》, 潘之恒(1636-1621)의 《名山注》 등의 책이 인기를 끌었다. 이것은 당시 유람이 사회적으로 열기를 띠었고 독서에 대한 수요와 취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이미 선집 작품의 범주와 문체를 고려하는 등 선집 기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들 선집본에는 유람이나 臥遊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挿圖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⁴⁾ 유람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유람이 유행하게 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당시에 유람지가 이미 조성되었고, 유람에 필요한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 그리고 유람에 필요한 지도 및 도구, 그리고 유람을 안내하는 가이드 등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⁵⁾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인데, 당시 이미 관방에서 개설한 것 외에도 민간 도로가 많아져 전국적인 교통망이 형성되었다. 명 중기 이후 수로와 육로 교통이 연계되었고, 야간에도 선박이 운행되었으며 운수업 종사자가 등장하였다. 그 증거로는 다양한 路程書의 출판을 들 수 있다.⁶⁾

셋째, 유람 행위를 평가하는 풍조가 생겼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山人[유람인]이고, 무엇이 진정한 유람[眞游]이며, 무엇이 游道인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朱國楨(1558-1632)은 〈黃山人小傳〉에서 黃勉之를 五岳山人으로 부르고 진정한 山人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산인은 산수에 대한 흥취[山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험지에 숨어 있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체력[山足]이 있어야 하며, 산수 자연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풍부한 감수성[山腹]을 갖추어야 하고, 산수를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는 표현력[山舌]이 요구되며,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 데 싫증을 내지 않는 우직함[山僕]을 꼽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도 갖추지 않고서 진정한 산인이라고 허풍을

3) 魏向東 等, 〈晚明文人旅游行爲特征之文獻研究〉; 《桂林旅遊高等專科學校學報》第18卷 第6期, 2007.

4) 權錫煥, 〈중국전통유기의 핵심시기〉; 《한국한문학연구》 제49집, 한국한문학회, 2012.6.

5) 滕新才, 〈蘇州府部·風俗考〉: 「吳人好游, 以有游地, 有游具, 有游友也」(《古今圖書集成》職方典卷676)

6) 權錫煥, 〈중국전통유기의 핵심시기〉; 《한국한문학연구》 제49집, 한국한문학회, 2012.6.

떨었던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다. 주국정은 이 글을 통해 당시 이런 사람들을 풍자하였다.⁷⁾

潘耒(1646~1708)도 〈徐霞客遊記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인과 達士 중 유람을 즐겨 말하는 사람이 많다. 유람은 쉽게 말할 것이 아니다. 세속을 초월하려는 뜻을 품지 않으면 산수를 감상할 수 없고,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갈 체력이 없으면 신비한 경치를 발견할 수 없다. 한가한 시간이 없으면 소요(逍遙)의 본성과 어울린다고 할 수 없다. 근거리 유람(近游)은 광범위하지 못하고, 알팍한 유람(淺游)은 기이한 것을 보지 못하며, 간편한 유람(便游)은 통쾌하지 못하고, 단체 유람(群游)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스스로 세속을 뛰어넘어 만사를 제껴두고, 자신의 의지를 홀로 실천하려 하지 않으면, 비록 유람을 할지라도 유람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⁸⁾

반되는 진정한 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속세를 초월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둘째 험로에 숨겨진 비경을 찾을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글에 빠져 있는 문인이나 초월적 세계를 추구하는 達士는 진정한 유람을 꿈꾸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어서 근거리 유람(近游), 알팍한 유람(淺游), 간편한 유람(便游), 단체 유람(群游)은 진정한 유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당시에 유람에 대한 평가가 유행했던 것은 유람문화가 이미 보편화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명말청초에 이르러 유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근거를 설명하였다. 그러면, 당시 조선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이에 대해 심경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7) 朱國禎 〈黃山人小傳〉: 「勉之自號五岳山人, 其自稱于人亦曰山人. 田嘗戲之曰 “子誠山人也, 癖耽山水, 不顧功名, 可謂山興; 瘦骨輕軀, 乘危涉險, 不煩筇策, 上下如飛, 可謂山足; 目擊清輝, 便覺醉飽, 飯才一溢, 飲可曠旬, 可謂山腹; 談說形勢, 窮狀奧妙, 含腴咀雋, 歌咏隨之, 若易牙調味, 口欲流涎, 可謂山舌; 解意蒼頭, 追隨不倦, 搜奇剔隱, 以報主人, 可謂山僕; 備此五者, 而謂之山人, 不亦宜乎!” 坐客爲之大笑. 此雖戲言, 然人于五者無一, 而漫曰游山, 必非眞賞」(《湧幢小品》, 齊魯書社影印本, 1997)

8) 潘耒 〈潘序一〉: 「文人達士, 多喜言游. 游, 未易言也. 無出塵之胸襟, 不能賞會山水, 無濟勝之支體, 不能搜剔幽秘; 無閑曠之歲月, 不能稱性逍遙, 近游不廣, 淺遊不奇, 便遊不暢, 群遊不久. 自非置身物外, 棄絕百事, 而孤行其意, 雖游猶弗游也」(朱惠榮校注, 《徐霞客遊記校注》, 雲南人民出版社, 1353쪽)

“조선후기에는 지식층의 여행이 다양한 의미를 띠면서, 국토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갖가지 여행기, 노정기, 일록이 발달하고 기행화첩이 제작되었다. 또 18세기 중엽에는 가난한 선비나 여행인들도 금강산을 유람하고 동유록·금강록을 엮었다...조선 후기의 지성인들은 국토의 자연미와 역사미를 탐색하고 국토 이용의 실제 문제를 자각하였으며, 혹은 산수에 천성대로 노니는 것 자체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⁹⁾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국토의 아름다움을 직접 밟고 체험하는 여행이 유행하였고, 유기와 노정기, 삽화본 유기집 및 화첩이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사대부나 관리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천성에 맞추어 노니는 유람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수유기는 17세기에 들어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였다고 한다. 여행문화의 발달, 明清 산수유기의 유입, 새로운 미의식과 창작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산수유기 창작 또한 다채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한편 17세기 이후에 이르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형식의 기행문학이 되었다.¹⁰⁾ 산수자연으로부터 이념을 추구하려던 17세기 이전의 도학자(道學者)와 달리 산수를 감상하고 풍류를 즐기는 경향이 짙어지기 시작하였다.¹¹⁾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말청초 · 조선 중후기의 사람들은 산수자연을 유람의 대상으로 삼았고, 유람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유람 행위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유람 환경의 변화를 통해 본 《山中日記》

그럼 《산중일기》에 반영된 우담의 유람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산중일기》의 기록을 보면, 우담은 6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원유를 시작하였다. 2년 여 동안 東土, 時令[감기], 학질 등의 질병과 발가락 부상, 빈대 등

9) 심경호, <동아시아 산수기행문학의 문화사적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49집, 2012.

10) 鄭雨峰, <조선 후기 遊記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제49집, 2012.

11)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노경희, <17세기 전반기 官僚文人 山水遊記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별레의 공격, 폭우와 누수 등 자연 재해, 화재 등을 무릅쓰고 계획했던 원행을 완수하였다. 산수 유람에 대한 의지와 흥취가 특별하였고, 산인으로서의 체력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들의 위독한 병세와 가족의 안위, 당파간의 분쟁 등 세속의 문제를 모두 버리고 자신이 추구하던 유람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스스로 세속을 뛰어넘어 만사를 제켜두었던” 인물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담은 앞서 언급한 주국정과 반퇴가 말한 산인의 자격을 가졌으며 진정한 유람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언급을 인용하기로 하자.

고매한 아취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산수를 좋아하여 나라의 명승을 두루 유람하였고,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면 간혹 하루 종일 소요하였고, 날아가듯 속세를 떠나려는 생각을 하였다.¹²⁾

선생은 맑고 원대한 마음을 품고, 호방한 氣韻은 가졌으며, 고아하게 산수를 좋아하여 항상 초연하게 혼자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부터 20년을 한적하게 호남·영남·경기·강원 지방을 두루 답사하였다. 깨끗하고 맑은 곳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머물렀고, 여러 날 和樂하면서 글을 읽고 뿌듯해지고 마음이 흡족해진 뒤 떠나갔다. 만년에는 龜潭 가에 집을 짓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유숙하였다.¹³⁾

윗글을 통해 볼 때, 우담은 산수 유람에 흥취를 가지고 있었고, 산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뛰어났으며, 원유를 떠나려는 의지가 강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날아가듯 속세를 떠나려는 생각[飄然有出塵之想]’, ‘초연하게 혼자 떠나고 싶은 마음[超然獨往之意]’을 가졌던 것은,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의식을 벗어버리려는 욕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담의 유람은 단순히 현실적 굴레를 벗어던지거나 산수자연을 완상하는

12) 崔道鳴, 〈遺事〉: 「雅有高趣, 好佳山水, 遍遊域中形勝, 遇適意處, 或徜徉終日, 飄然有出塵之想」(《愚潭先生文集》卷10)

13) 李栻, 〈愚潭公墓誌銘并序〉: 「又其襟懷清遠, 氣韻豪逸, 雅好山水, 常有超然獨往之意. …… 於是優遊二十年足迹殆遍於湖嶺畿關之間. 每遇蕭灑處, 必淹留. 時月怡養誦習充然 意愜而後去. 向晚 置屋於龜潭之上 歲亦一再往留焉」(《愚潭先生文集》卷12)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유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서이다. 우담은 유람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책을 끼고 산을 유람하겠다(携書遊山)’고 하였고¹⁴⁾, 《산중일기》의 기록을 보면, 그는 579일간 유람하면서 263일을 독서하였다.¹⁵⁾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독서와 유람의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산수 유람은 마치 집안 뜨락울 걷는 것과 같이 걸음을 재촉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 나의 독서는 성현의 가르침처럼 많은 것을 탐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있었다”¹⁶⁾

유람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먼 곳으로 가야하고, 독서를 통해 성현의 가르침은 터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담은 독서와 유람을 함께 추구해야 할 세계로 보았고, 성급하게 재촉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李瀾은 우담을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은) 성현의 책에 대한 자세한 고증을 통하여 그 진실을 증험하고,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하여 그 아취를 넓혔다.¹⁷⁾

이처럼 우담은 성현의 서책에 대한 정교한 고증을 통하여 진실을 발견하는 한편 유람을 통하여 아취를 넓혔다. 독서와 유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우담의 생각은 독서와 유람의 상관관계를 언급한 董其昌(1555-1636)의 “만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가라(讀萬卷書, 行萬里路)”¹⁸⁾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유람을 통해 터득하는 이치는 같다는 뜻이다. 이는 16-17세기 조

14) 李拭, 〈愚潭公墓誌銘并序〉: 「年逾六十, 無寧挾書遊山, 求志於寂寞之濱乎?」(《愚潭先生文集》 권12).

15) 李鍾求, 〈丁時翰의 ‘山中日記’를 통해본 當代人的 遊山文化研究〉, 경북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2007.

16) 〈敘述〉: 「吾於遊山, 如履戶庭之間, 無促行之意, 故能致遠, 吾於讀書, 如聖賢之教, 無貪多之意, 故能持久。」(《愚潭先生文集》 권10附錄)

17) 〈敘述〉: 「精考聖賢之書, 以驗其實, 遍遊名山川, 以博其趣。」(《愚潭先生文集》 권10附錄)

18) 董其昌, 〈畫訣〉: 「畫家六法, 一氣韻生動. 氣韻不可學, 此生而知之, 自有天授, 然亦有學得處. 讀萬卷書, 行萬里路, 胸中脫去塵濁, 自然丘壑內營, 立成鄧鄂。」(《畫禪室隨筆》 卷2)

선의 유학자나 사대부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예를 들면 이황, 조식, 정구, 박여량, 유몽인, 정서연, 권호문, 금난수 등이 유람과 독서를 동일한 세계로 여겼다.¹⁹⁾

그럼 산수자연을 대하는 우담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는 평소 산수를 좋아하는 [雅好山水], 말하자면 山水癖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람을 통하여 흥금을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싶었던 것이지, 고행과 空談을 즐기지는 않았다.²⁰⁾ 또한 고이하게 산수자연을 좋아하여 유람을 통하여 스스로 이치를 터득하는 즐거움을 추구했을지언정 망중한을 즐기거나[偷閒], 경치를 감상하며[翫景], 방랑하고[放浪], 산수를 탐닉하지는[煙霞] 않았다.²¹⁾

이어서 우담의 명승지를 방문하는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담은 유람 도중에 사찰 등 종교 명승지를 자주 방문하게 된다. 이것은 명말 유람자들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예를 들면, 王思性(1547-1598)은 21년의 遠遊 동안 도관과 사묘를 많이 방문하였다. 그러나 그는 방문 중에 만난 스님과 도사들과는 종교적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길 안내자로 간주하였다. 게다가 도관과 사묘를 숙박용으로 사용하였고, 경배 활동을 하거나 종교 시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²²⁾ 서하객 역시 유람 도중에 도관과 사묘를 자주 출입하였지만 이것은 그의 의지와 취향 때문이지 여기에 빠진 적이 없었다.²³⁾

우담은 유람을 하면서 많은 사찰을 방문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체류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찰의 불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불교적 이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불교 서적을 읽지도 않았다. 또한 사찰에 대한 기록 역시 객관적인 시선을 견지하였다. 또한 승녀를 종교 사제로 대하지 않았고, 유람의 동반자 혹은 안내자로 여겼다.

이상에서 유람 환경의 변화 관점에서 《산중일기》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였다.

19) 李鍾求, 〈丁時翰의 '山中日記'를 통해본 當代人的 遊山文化研究〉, 경북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2007.

20) 李栻, 〈敍述〉: 「雅好山水, 蕩滌胸襟, 而非有樂乎苦空」(《愚潭文集》 권10附錄)

21) 趙宇鳴, 〈敍述〉: 「先生雅好山水, 遍遊諸名山……可見自得之真樂, 而亦非偷閒翫景, 放浪煙霞之比也」(《愚潭文集》 권10附錄)

22) 權錫煥, 《五岳游草》의 五岳遊記 考察, 《중국학논총》 제43집, 2014.02.

23) 楊名時, 〈楊序一〉: 「觀其意趣所寄, 往往出入于釋老仙佛, 亦性質之近使然, 而其爲人之奇倔豪宕, 于斯概見, 未可沒也!」(朱惠榮校注 《徐霞客遊記校注》, 雲南人民出版社, 1985. 1356쪽)

우담의 유람행위는 당시 유람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았고, 그는 진정한 산인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두루 겸비하였다. 우담은 세속의 문제를 모두 벗어던지고 유람의 길을 떠났고, 아울러 독서를 통하여 진리를 터득하였다. 그래서 그의 유람은 단순히 산수경관을 탐닉하거나 망중한을 즐기는 방편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종교적 고행도 아니었다.

IV. 人文地理的 觀點에서 본 《山中日記》

이상에서 《산중일기》를 명말청초, 조선중후기에 흥성했던 유람문화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그럼 이것은 《산중일기》의 내용적 특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명말청초에 이르면, 유기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거나 산수자연을 통한 사색과 관조, 우주의 변화와 생명의 내재적 의미 등을 피력하였던 전통 유기로부터 변화의 길을 갔다. 유람의 노정·동행자·목적·만난 사람·사건 등 사실을 기록하는 서사 부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은 인문지리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일반적으로 人文地理學은 지표상에 있어서의 인간 활동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한다. 《산중일기》는 사찰, 서원, 민가, 부도, 산길, 도로, 망 등에 대한 기록 외에, 지세와 거주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우담은 병인년(1686) 4월 11일, 槐山에서 化寧을 넘어 尙州의 無量洞에 이르렀다. 짙 막힌 두 협곡을 지나 밝고 넓은 들녘으로 빠져나서 그곳이 별천지(別界) 같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陶淵明이 〈桃花源記〉에서 어부가 도화동 입구에 이르러 “처음에는 매우 좁아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었는데, 다시 수십 보를 가니 활짝 열려 밝아지고 땅이 평평하고 넓었다(初極狹, 才通人. 復行數十步, 豁然開朗. 土地平曠)라며 별천지를 찾는 순간과 비슷하였다.

이처럼 우담은 《산중일기》 곳곳에서 ‘별천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병인년 4월 2일 성주 寒岡亭을 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느낌(曠世之感)’을 받았다고 하였고, 같은 해 4월 5일 龍湫를 ‘진정한 은자가 노닐며 즐기던 곳(眞隱者之所般旋)’이라

고 표현하였다. 같은 해 7월 27일, 養眞庵에 올라 ‘속세와 멀리 떨어져 신선이 사는 곳(比塵世隔遠, 有同蓬壺)’이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蓬壺는 신선이 산다는 蓬萊를 말한다.²⁴⁾ 같은 해 9월 11일, 愁送臺를 보고 別천지(壺中別界)라고 하였으며, 10월 6일에는 속리산 水晶峰에 올라 “바람에 나부껴 속세를 벗어나 혼자서 세상 밖에서 초연한 듯 하였다.(飄飄然若遺世脫俗獨超物外)”라고 하였다. 이해 12월 15일 上獅子庵에 올라 “반쯤은 하늘 위에 앉은 것 같고 속세의 욕망이 사라지는 듯(如坐半天上, 塵欲似滅)”하다고 여겼으며, 정묘년(1687) 3월 8일, 원주 彌乃의 茅屋을 보고는 “마치 무릉도원에 들어온 것 같다(宛如桃源境)”라고 하였다. 이상 열거한 부분은 모두 우담이 현실 속에서 이상향을 찾고자 했던 열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담은 더 나아가 別천지를 明堂 개념과 연계하여 이해하였다. 우담은 병인년 8월 17일 雙磎寺의 方丈과 함께 瀛洲閣을 유람하였다. 우담은 이곳에서 崔致遠과 眞鑑禪師가 이치를 논하며 노닐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이곳이 ‘명당’이며 신선이 사는 ‘別천지(壺中別天地)’라고 평가하였다. 병인년(1686) 10월 19일, 속리산 天王峰 중턱에 위치한 本耳庵과 本俗離庵에 올라 그 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艮坐坤向으로 좌우 쪽의 주된 형세는 모두 기이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다. 左靑龍과 右白虎의 둘 봉우리는 매우 기이하였으며, 案山의 암석은 靑龍 자리를 감싸 안은 것 같았다. 주변에 흐르는 물은 달고 차가웠다. 자리하고 있는 터는 공간이 매우 좁았으나 단정하고 교묘하게 둘러싸여 있었고, 높고 깊으며 그윽하고 깊숙하여 진실로 도인이 거처하기 알맞은 곳이었다. 평범한 사람의 안목으로도 이 산과 이 방향에서는 明堂처럼 보였다. 단지 동남쪽 방향이 크고 높아 겨울에는 낮이 되어야 비로소 해를 볼 수 있는 것이 흠이었다.”²⁵⁾

이상과 같이, 우담은 이곳이 도인이 거처할만한 명당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24) 晉 王嘉, 《拾遺記·高辛》: 「三壺則海中三山也. 一曰方壺則方丈也; 二曰蓬壺則蓬萊也; 三曰瀛壺則瀛洲也. 形如壺器。」

25) 《山中日記上》 丙寅十月十九日: 「艮坐坤向而主勢皆以奇巖圍繞. 龍虎石峯奇奇, 案山巖石若抱靑龍, 邊澗水甘冽. 基深狹窄, 而端妙回抱, 高深幽邃, 眞道人之所居. 凡眼所見似是此山此面之第一明堂也. 但欠東南方太高, 冬則至午始見日也.」

陽宅風水는 《周易》 이래 오랜 학문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문지리의 대표적 학설에 해당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택지에서 뒤로 산을 등지고, 좌청룡, 우백호, 앞으로 案山, 가운데 명당을 최고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산세와 좌향이 인간 활동을 결정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담은 보조국사 지눌이 수도한 놀암과 광석대에서 바라 본 八公山의 산세, 求禮 吉祥臺庵, 安養寺, 그리고 五臺山 月精寺, 慶州府의 지세, 河回의 형세 등을 언급하였다. 모두 사람이 살기 편안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우담은 《산중일기》를 통해 인간의 활동과 산수 지세의 융합을 추구하였다.

人文景觀 역시 인문지리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담은 《산중일기》의 여러 곳에서 산수자연 속에 남겨져 있는 石刻과 傳說 등을 기록하였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최치원 관련 유적지이다.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 시절과 강남 지역의 관리 생활 동안 주변 산수를 유람하면서 사대부들의 산수 경영법을 터득하였다. 그는 귀국 후에 咸陽太守 등의 관직을 수행하면서 전국의 산천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산수자연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수많은 시문과 석각을 남겼다. 이런 점에는 그를 한국 최초로 인문경관을 경영하고 실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담은 최치원의 가야산 홍류동, 함양 학사루, 쌍계사 진감선사비, 하동 세이암 등의 유적지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이곳을 중복해서 유람했을 뿐만 아니라 함양의 경우는 오랫동안 체류하였다. 우담은 병인년 4월 9일 가야산 紅流洞을 유람하였다. 歌妓가 빠져죽었다는 落花巖 전설과 석각을 소개하였다. 최치원이 쓴 것으로 알려진 ‘噴玉瀑’·‘霧月潭’·‘光風瀨’·‘完在巖’·‘吟風瀨’·‘吹蓬峰’·‘泚筆巖’ 등의 석각과 石刻題詩²⁶⁾, 宋時烈이 산봉우리 아래 바위에 새긴 최치원의 시를 기록하였다. 석각은 계곡의 곳곳에 이름을 부여하고 공간을 장소로 만들며, 산수자연을 미적으로 장식하는 동시에 시각화한다. 그리고 석각은 유람의 안내하는 역할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산수자연의 인문화이면서 경관화라고 할 수 있다.²⁷⁾

우담은 최치원의 진적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어루만지며 한탄스러워하였다. 그러다가 한 순간 철쭉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26) <題伽椰山讀書堂>, 《孤雲集》 권1.

27) 권석환, 《중국문자텍스트의 시각적 재현》; 한국학술정보, 2010, 32쪽.

“너럭바위의 사방 틈 사이로 철쭉이 에워싸고 있다. 꽃 봉우리는 아직 벌지 않았는데, 앉아 있는 사이에 갑자기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미소 짓는 듯 맞이하는 듯, 사랑스럽고 귀여워 해가 중천에 기우는 줄도 모르고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다”²⁸⁾

홍류동 계곡에서, 우담은 석각을 어루만지며 인결은 가고 석각만 남아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끼다가 갑자기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병인년 8월 16일, 하동의 洗耳窟의 석각을 보고 “맑게 씻긴 듯 속세를 벗어났다(清灑脫俗)”고 표현하였다.

이상에 살핀 바와 같이, 《산중일기》는 당시의 유기 창작 경향과 마찬가지로 인문 지리적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유기집이라고 할 수 있다.

V. 유기 표현형식으로 본 《山中日記》

그러면, 《山中日記》는 유람의 기록으로서 어떤 표현 형식을 채택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표현 형식은 표현 기법과 문장 구조, 문체를 포괄한다. 구조적으로 보면, 전통 유기는 유람의 노정·동행자·목적·만난 사람·사건 등의 사실을 기록하는 서사 부분,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서정 부분, 그리고 산수자연에 대한 사색과 관조를 통해 우주의 변화와 생명의 내재적 의미 등을 피력하는 議論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산수 유기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지만, 유람 사실의 기록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담의 《山中日記》는 기본적으로 ‘유기’와 ‘일기’라는 두 문체가 착종되어 있다. 두 문체는 문체 분류상 ‘기록’한다는 점에서 ‘雜記類’ 혹은 ‘記敘類’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유기는 여정의 ‘체험’이 필수 요건이지만, 일기는 체험이 없어도 된다. 일기가 정적 세계를 추구한다면, 유기는 동적세계가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가 《山中日記》를 읽을 때 두 문체를 분리하여 읽는 것도 필요하다.

28) 《山中日記上》: 「盤石四面隙間, 躑躅圍繞, 紅英未綻, 坐有忽漸開, 如笑如迎, 愛玩忘歸, 不覺日之中矣。」

총체적으로 보면, 《山中日記》은 유람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일기체 유기’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우담은 여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일상에 대한 기록 역시 빠트리지 않았다. 우담에게는 여정 자체가 일상이었다. 여정 외에는 독서와 대화 등이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담이 유기를 기록하는 태도였다.

정묘년 8월 7일 昭陽亭과 淸平寺 유람 대목을 보자.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읍내를 경유하였는데 형세가 보이지 않았다. 소양정에 이르니 안개가 제법 걷혔다. 정자에 올라 이동할 때까지 바라보았다. 등 뒤에는 겹겹이 쌓인 병풍산과 층층 바위가 에둘러 있어 깊숙하고 그윽하였다. (소양정은) 맑은 강과 큰 들판을 굽어보았다. 눈이 닿는 데까지 먼 산을 바라보니 둥글게 감싼 경치가 천태만상이고 진실로 절경이었다.……바윗길이 매우 위험하여 말에서 내려 5리 남짓을 걸어 淸平洞 입구에 도착하였다. 退溪 선생의 시에 “협곡에 묶인 강, 너럭바위에 기울어진 사다리 길. 갑자기 구름 밖으로 시냇물이 맑게 흐른다(峽東江盤棧道傾, 忽驚雲外出溪淸)”라고 한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 여러 번 계곡의 물줄기를 건너고 돌고 돌아 깊숙하게 들어갔다. 계곡가에 이르러 밥을 먹고 말을 먹였다. 잠시 있다가 걸음을 재촉하여 정평사 아래 九松亭에 도착하였다. 폭포가 너럭바위 위로 흐르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다. 말을 놓아두고 걸어서 오르면 影池가 나타났다. 절 문밖의 섬돌 위에는 ‘眞樂公重修淸平記’가 있는데, 고려 金富軾이 글을 쓰고, 坦然 스님이 글씨를 썼다.……松臺 위에 네모난 자리를 설치하고 항상 앉아서 노닐었던 곳이라고 한다. 초당의 터는 그윽하고 깊숙하였다. 급한 물줄기가 콧발 흐르고 섬돌이 반듯하여 아주 새 것 같았다. 남긴 자취를 어루만지며 구경하니 마치 진락공과 바위 절벽의 푸른 나무 사이에서 함께 노니는 것 같았다. 슬픈 감정이 일어났다.

저녁에 노비 搜理가 이불과 요를 가지고 왔기에 곧바로 돌려보냈다. 청오와 함께 잤다. 청오는 불법에 정통하였고, 功力的 사용 절차에 능통하였다. 오늘 50여 리를 걸었다.²⁹⁾

29) 《山中日記下》: 「丁卯八月初七日:晴朝大霧. 由邑內而不能見形勢. 至昭陽亭則霧頗收, 登眺移時. 背後疊嶂, 層岩圍繞深邃, 俯臨澄江大野, 極目遠山, 環擁景態萬千, 眞絕景也. …… 壁路極危險, 下馬步五里許. 入淸平洞口. 退溪先生詩所謂峽東江盤棧道傾, 忽驚雲外出溪青者, 正此地也. 累渡溪流, 轉入轉深臨溪, 攤飯抹馬. 小時促行, 淸平寺下九松亭. 有溪流盤石之勝. 捨馬步上有影池. 至奪門外則石砌上有眞樂公重修淸平記, 高麗金富軾所撰, 僧坦然所書也. …… 松臺上置方席, 常常坐遊處云. 堂基幽邃, 瀑流潺湲, 石砌方正, 宛然如新, 撫覽遺迹, 恍若眞樂公周旋岩崖綠樹之間. 悵然興感. 夕奴搜理持衾褥來. 卽還送. 與悟同宿. 悟頗專於其業, 能通用工節次. 行五十餘里.」

우담은 아침에 안개 낀 춘천 읍내를 통과하고 소양정을 거쳐 청평사에 도착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퇴계 선생의 시를 인용하여 청평동 일대 계곡의 경관을 묘사하였고, 청평사를 중수한 진락공의 비석과 진락공의 유골 부도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송대 아래에 남아 있는 진락공의 유람처를 바라보고 느낀 감정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정을 마친 뒤의 일상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우담의 유기는 서사와 서정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여정과 일상을 자유자재로 넘어들었다. 특별히 의론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는 독자에게 상상의 여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일기체 유기'의 형식은 당대 柳宗元의 〈柳州山水近治可游者記〉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루의 여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유종원은 永州司馬로서 10년간의 편직 생활을 마치고 만년에 柳州刺史가 되었고, 柳州의 州治 부근의 산을 두루 유람하였다. 그는 潯水→背石山→龍壁→甌山→駕鶴山→屏山→四姥山→仙奔山→石魚山→雷山→雷塘→峨山을 두루 유람하였다. 작가는 발걸음에 따라 이동했던 여정을 표시하였다. 여정마다 경점의 특징이나 심미적 느낌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였다. 거의 유람의 '이정표'를 읽는 것과 같다. 서사 외에 서정과 의론을 최대한 절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茅坤은 유종원의 이 문장을 높이 평가하여, "전부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의론과 느낌이 한 구절도 없지만, 오히려 담백하면서도 아취가 있다."³⁰⁾고 했다. 유종원이 영주 편직 기간 〈永州八記〉를 통하여 懷才不遇한 심정을 투영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표현 기법이다. 이것은 유기 창작에 있어 유종원의 공간에 대한 미학적 상상력이 변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일기체 유기는 남송 시대 陸游의 〈入蜀記〉에서 시작되었다. 이 유기는 작가가 湖北省 宜昌 서쪽의 黃牛山을 통과하여 蜀 땅으로 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南宋 乾道 5년(1170), 육유는 고향인 山陰에서 夔州通判으로의 임명 소식을 듣고 임지로 떠나게 되었다. 작가는 이 해 閏 5월 18일 유람선을 타고 운하와 장강의 물길을 따라 160일 동안 절강성(浙)·강소성(蘇)·안휘성(皖) 등 6개 省市를 지나 10월 27일 기주에 도착하였다. 다음은 이 작품의 한 대목이다.

30) 《山曉閣選唐大家柳柳州全集》卷三：「全是記事，不着一句議論感慨，却淡宕風雅。」

8월 1일, 烽火磯를 지났다. 南朝 시대에 武昌에서부터 京口까지 烽燧臺를 연 달아 세웠는데 이 산이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배 가운데서 산을 바라보면 우뚝 솟아 있을 뿐이다. 뱃길에서 내려 그 산 아래에 가보니 높이 솟은 바위와 깊은 동굴이 괴이한 만물상을 하고 있었으며, 색깔은 맑고 윤기가 있어서 다른 바위들과는 전혀 달랐다. 또 바위 하나가 있는데 산에 붙어있지 않고 따로 우뚝 솟아올라 높이가 백여 척이나 되었다. 붉은 등나무와 푸른 덩굴이 바위에 엉겨 붙어 있어서 마치 보석으로 장식한 병풍 같았다. 이 날 바람이 잔잔하여 배의 운행은 매우 느렸다. 또 가을이 깊어가니 큰물이 줄어들었다. 두보가 읊은 “다행히 배가 느려 아름다운 경치를 다 구경할 수 있었다(幸有舟楫遲 得盡所歷妙)”라고 한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8월2일... 저녁에 江州에 도착했다. 주의 소재지가 德化縣이니 바로 당나라 때의 ‘潯陽縣’이다. ‘柴桑’이나 ‘栗里’가 모두 그 땅이다. 南唐 시대에는 奉化軍節度使가 관할하였지만 지금은 定江軍절도사의 관할이다. 언덕의 붉은 흙이 벽처럼 서 있다. 東坡 선생이 “뱃사공이 가리키는 언덕이 붉게 타는 것 같다.(舟人指點岸如赭)”고 읊은 것과 같다. 湓浦에 정박하니 물이 또한 매우 맑아서 강물과 섞이지 않았다.

7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시작과 끝이 6일이 되었다. 그 사이 하루는 바람이 막아 못 갔다. 실제로는 나흘 반 만에 7백 리를 거슬러 올라온 셈이다.³¹⁾

전체적으로 일기체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8월 1일 아침 봉화기에서 시작하여 澎浪磯와 小孤山을 거쳐 다음날 저녁에 江州에 도착하는 모두 700리 선상 유람의 기록이다. 유람 과정에서 발견한 산수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작가는 역대 시인(杜甫, 李白, 蘇東坡 등)의 시로서 대신하였다. 반면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은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비석, 지리, 전설, 행정구역, 유적지 등에 대한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였고, 부정확한 부분은 수정하였다. 작가는 자기 이전 시대 유람객의 발자취를 따라 갔고, 이를 확인하여 다음 세대에게 유람의 이정표를 제공하려는 의

31) 陸游, 〈入蜀記〉: 「八月一日, 過烽火磯. 南朝自武昌至京口, 列置烽燧, 此山當是其一也. 自舟中望山, 突兀而已. 及拋江過其下, 嵌岩竇穴, 怪奇萬狀, 色澤瑩潤, 亦與他石迥. 又有一石, 不附山, 傑然特起, 高百餘尺, 丹藤翠蔓, 羅絡其上, 如寶裝屏風. 是日風靜, 舟行頗遲, 又秋深潦縮, 故得盡見杜老所謂“幸有舟楫遲, 得盡所歷妙”也. ……八月二日…… 晚抵江州, 州治德化縣, 卽唐之潯陽縣. 柴桑、栗里, 皆其地也. 南唐爲奉化軍節度, 今爲定江軍. 岸土赤而壁立, 東坡先生所謂“舟人指點岸如赭”者也. 泊湓浦, 水亦甚清, 不與江水亂. 自七月二十六日至是, 首尾纔六日, 其間一日阻風不行, 實以四日半, 溯流行七百里云。」

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역시 의론을 억제하고 느낌은 옛 시인의 표현으로 대신하였다는 점에서 《산중일기》의 전체적인 서술기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기체 유기는 명말 徐霞客(徐弘祖1586-1641)에 이르러 실증적 탐구정신과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서하객은 22세인 萬曆 35년(1607) 고향인 南京 江陰을 출발하여 16개 성(省)과 자치구를 돌아 54세인 崇禎 12년(1639) 30여 년 동안의 원행을 하였고, 그 결과를 《徐霞客遊記》에 남겼다. 이 유기는 험난한 산길, 거친 물결을 넘고, 광풍과 폭우, 그리고 맹수들의 위협, 게다가 토호세력과 지주 그리고 도적·강도들의 방해를 극복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책명은 《서하객유기》이지만, 편명을 보면 〈游天台山日記〉·〈游雁宕山日記〉·〈游恒山日記〉 등처럼 ‘일기’를 표방하고 있다. 다음 문장을 보자

〈浙游日記〉

丙子 10월 초9일, 일찍 일어났다. 하늘색이 씻은 듯하였다. 王敬川과 함께 蘭溪 서문으로 들어가 즉시 현청 앞을 지났다. 현청 앞은 사람이 물결을 이루었는데 아마도 현감이 사망한 것 같았다. …… 서쪽 玉壺水에서 남쪽 아래로 흐르는 물은 반석을 지나 三洞에서 잠겼다가 넘치고, 북쪽 아래로 흐르는 물은 속의 샘물에서 솟아나와 난계 북쪽으로 갔다. 동쪽 옥호수에서 남쪽 아래로 흐르는 물은 赤松宮을 경유하여 金華로 나가며, 동쪽 아래로 흐르는 물은 義烏로 나가며, 북쪽 아래로 흐르는 물이 浦江이다. 모두 한 개의 군을 흐르는 지류들의 중심축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옥호를 盤泉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갈라져 솟아오른다고 三望尖이라고 부른다. 金星峰이라고 기록되었지만, 대부분 北山이라고 부른다. 봉우리에 도착하니 해가 떨어져 연못에 잠겼다. 그 아래는 물빛이 가득한데, 흡사 해를 받아들여 넓고 깊은 물이 넘실거리며 출렁이는 것 같았다. 衢江이 서쪽으로 흘러 한 번 굽이 친 바로 그곳이 떠올랐다. 석양은 벌써 떨어졌고 이어서 흰 달빛이 비추니 수많은 소리가 고요해졌다. 씻긴 듯 온통 파란 것이 마치 맑은 옥주전자와 같았다. 우리 두 사람의 형제와 그림자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다. 돌이켜 생각하니 자질구레한 인간세계에서 누가 다시 이 밝은 빛을 알 수 있을까. 이 때 어떤 사람이 누각에 올라 천천히 휘파람을 불며 술을 따라 강을 마주하하였다. 그는 내가 평생토록 홀로 밟았던 수많은 산봉우리, 막다르고 끊어진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속세의 모습과 확연히 다르길 하늘과 땅의 차이에 그치지 않았다. 비록 요물과 짐승 무리가 나에게 다가와도 두렵지 않은데, 하물며 움직이지 않고 적막하게 허공과 더불어 유람함에 있음에랴! ……³²⁾

위에서 인용한 유기는 서하객이 승정 9년(1636) 10월 19일, 난계를 지나 북산의 정상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일기체 유기에 들어가야 할 일시, 기후, 여정, 水域, 지명 등 객관적 사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작가는 산 정상에 올라 강을 바라보았고, 밝은 달 아래 펼쳐진 선경을 통하여 우주와 교감하였다. 작가는 이 유기에서 서사와 서정의 조화를 꾀하였다.

奚又溥는 《서하객유기서》에서, 서하객의 유기 창작 의도(筆意)는 유종원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유종원이 회재불우한 처지를 기탁한 〈영주팔기〉등과 다르다고 하였다. 그 이유인 즉 〈영주팔기〉처럼 조그만 한 개의 언덕이나 계곡을 통해 가슴속에 담긴 감정을 피력하는 것은 유람의 大觀이 아니라는 것이다.³³⁾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하객유기》가 ‘의론’과 ‘感慨’를 절제하고 여정에 대한 사실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다. 그래서 楊名時는 《서하객유기》의 서술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개 서하객의 유기는 경관을 집어 직접 기록하는데, 상세하고 번잡한 것을 피하지 않았다. 묘사와 수식, 흥취의 기탁과 감정 서술에 있어서, 옛 사람의 유기와 문장의 기교를 다투려는 의도가 없었다.³⁴⁾

32) 〈浙游日記〉: 「丙子十月初九日 早起, 天色如洗, 與王敬川同入蘭溪西門, 卽過縣前. 縣前如水, 蓋縣君初物故也……西玉壺之水, 南下者由棋盤石而潛溢于三洞, 北下者從裏水源而出蘭溪之北 東玉壺之水, 南下者由赤松宮而出金華, 東下者出義烏, 北下者浦江, 蓋亦一郡分流之脊云. 玉壺昔又名盤泉, 分聳于上者, 今又稱爲三望尖, 文之者爲金星峰, 總之所謂北山也. 甫至峰頭, 適當落日沈淵, 其下恰有水光一片承之, 混漾不定, 想卽衢江西來一曲, 正當其處也. 夕陽已墮, 皓魄繼輝, 萬籟盡收, 一碧如洗, 眞是濯骨玉壺, 覺我兩人形影俱異, 回念下界碌碌, 誰復知此清光! 卽有登樓舒嘯, 釃酒臨江, 其視余輩獨躡萬山之巔, 徑窮路絕, 迥然塵界之表, 不啻霄壤矣. 雖山精怪獸群而狎我, 亦不足爲懼, 而况寂然不動, 與太虛同游也耶!……」(朱惠榮校注 《徐霞客遊記》, 雲南人民出版社, 1985, 131-133쪽)

33) 奚又溥, 〈奚序〉: 「霞客徐先生《記游》十卷, 蓋古今一大奇著作也. 其筆意似子厚, 其敘事類龍門, 故其狀山也, 峰巒起伏, 隱躍毫端, 其狀水也, 源流曲折, 軒騰紙上……夫司馬柳州以游爲文者也, 然子厚永州記游諸作, 不過借一丘一壑, 以自寫其胸中塊壘奇倔之思, 非游之大觀也.」(朱惠榮校注 《徐霞客遊記校注》, 雲南人民出版社, 1985, 1354-1355쪽)

34) 〈楊序二〉, 楊名時: 「大抵霞客之記, 皆舉景直書, 不憚委悉煩密, 非有意於描摹點綴, 托興抒懷, 與古人游記爭文章之工也」(朱惠榮校注 《徐霞客遊記校注》, 雲南人民出版社, 1985, 1358쪽)

이처럼 서하객 유기는 미사여구를 가지고 산수자연에 대한 흥취를 기탁하거나 서정을 펼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장의 기교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담의 《산중일기》는 유종원, 육유, 서하객으로 이어지는 일기체 유기의 표현기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의 주요 특징으로 는 길은길이 따라 경관이 바뀌는(移步換景) 표현기법을 동원하여 서사와 서정 혼합, 유람과 일상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과도한 서정의 표현이나 경치에 대한 묘사, 공담이나 玄虛한 의론을 자제하였다. 그 대신 독자들로 하여금 와유(臥遊)를 즐길 수 있도록 노정을 분명히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상상의 공간을 넓혀 주려고 하였다.

VI. 결론

이상에서, 유람문화의 변화 과정 속에서 《산중일기》를 고찰하였다. 명말청초에 이르러 산수자연은 노니는 대상이 되었고, 자의적으로 유람을 떠나는 시대를 맞이 하였다. 도로망이 정리되고 운송업이 발달하는가 하면 유람을 안내하는 노정서의 출판이 유행하였다. 다양한 형식의 유기가 창작되었는가 하면 역대 유기를 정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유람에 대한 평론을 통하여 진정한 유람이란 무엇인지를 밝히려려고 하였다.

조선 중후기에 이르러 여행문화의 발달, 明清 산수유기의 유입, 새로운 미의식과 창작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산수유기 창작 또한 다채로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산중일기》는 이러한 시대의 유람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담은 유람을 떠나면서 현실을 저버리지 않았고, 고행이나 공담을 통해 이념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독서와 유람을 통하여 지식과 아취를 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산중일기》는 인문지리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별유천지’ 혹은 명당의 관념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과 산수 지세의 융합을 도모하였다. 《산중일기》에 기록된 석각, 전설, 고사, 풍문, 사찰, 서원, 민가, 부도 등은 모두 인문지리를 이루는 요소들로서, 산수자연에 대한 인문경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산중일기》는 일기체 유기로서 유종원, 육유, 서하객 등의 표현기법을 사용하였

다. 산수자연에 대한 과도한 감정 이입과 자연 경관에 대한 화려한 묘사를 억제하였으며, 의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유람의 여정 기록에 집중하였다.

【參考文獻】

- 閔泳珪, 〈愚潭 丁時翰 山中日記〉,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제18집, 1967.
- 금장대, 〈愚潭丁時翰의 學問과 思想〉, 《퇴계학파의 사상 I》 集文堂, 1996.
- 金相永, 〈愚潭 丁時翰의 생애와 山中日記 내용 분석〉, 《중앙승가대학 논문집》 6집, 1997.
- 김동욱, 〈愚潭丁時翰의 山中日記-17세기 한 선비의 건축기행〉, 《건축역사연구》 제13권, 1997.
- 吳周學, 〈愚潭 丁時翰 ‘山中日記’의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2.
- 李鍾求, 〈丁時翰의 ‘山中日記’를 통해본 當代人的 遊山文化研究〉, 경북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吳周學, 〈愚潭 丁時翰 산중일기 일 고찰〉, 《한문학논총》, 權域 한문학회 26집, 2008.
- 원주시 편, 《愚潭 丁時翰 研究》, 원주시, 2009.
- 리기용 편, 《丁時翰 性理學 研究》, 원주시, 2010.
- 丁時翰 著, 김성찬 등 편찬, 《山中日記》(상, 하, 영인본), 원주시, 2012.
- 정범진 편역, 《우담연보》, 우담정시한선생기념사업회, 2015.
- 박희병, 〈한국산수기 연구〉, 《고전문학연구》 8집, 1993.
- 김주미, 〈朝鮮後期山水遊記의 展開와 特徵〉,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혜순 외, 《조선중기의 遊山記 문학》, 집문당, 1997.
- 남현희, 〈고려후기 산수유기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8.
- 황인건, 〈谷雲金壽增의 山水文學研究〉,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철조, 〈한문학을 통해 본 금강산〉, 《한문학보》 제1집, 1999.
- 송재소, 〈가정 이곡의 동유기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24집, 1999.
- 김채식, 〈晤堂李象秀의 산수론과 東行山水記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노경희, 〈17세기 전반기 관료문인의 산수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 민,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경향〉, 《18세기 연구》 4호, 한국18세기학회, 2001.
- 황경일, 〈玉所 權燮의 山水散文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權錫煥, 〈소통의 문학: 중국 산수유기(山水遊記) 다시 읽기〉, 《중국문학연구》 제45집,

2011.

- 심경호, 〈동아시아 산수기행문학의 문화사적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49집 2012.
鄭雨峰, 〈조선 후기 遊記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제49집 2012.
權錫煥, 〈중국전통유기의 핵심시기〉, 《한국한문학연구》 제49집, 한국한문학회, 2012.
權錫煥, 〈《五岳游草》의 五岳遊記 考察〉, 《중국어학논총》 제43집, 2014.02.
朱惠榮校注, 《徐霞客遊記校注》, 雲南人民出版社, 1985.
滕新才, 〈明朝中後期旅游文化論〉, 旅遊學刊, 2001年 6期.
梅新林·俞樟華 主編, 《中國游記文學史》, 學林出版社, 2004.
魏向東等, 〈晚明文人士人旅行行為特征之文獻研究〉, 《桂林旅遊高等專科學校學報》, 2007, 第18卷 第6期.
周振鶴, 〈從明人文集看晚明旅游風氣及其與地理學的關係〉, 《復旦學報》2005年 第1期.

【中文提要】

這篇論文的目的是從遊覽文化變化過程的角度來考察愚潭丁時翰的《山中日記》。

到明末清初，山水自然成爲遊覽的對象，迎接自覺的遊覽時代。交通道路修建，商程書·路程書出版。遊記的創作和歷代遊記選集本的出版很流行。對遊覽進行評論等，推動遊覽文化的發展。到了朝鮮中後期(17世紀)，因爲遊覽文化發展，明清山水遊記的傳過來朝鮮，新美意識和創作觀念出現等，掀起山水遊記創作的熱潮。所以我們可以說《山中日記》是遊覽文化熱潮的產物。愚潭不趨於出世和的隱逸，不願意追求苦行空談的理念，通過讀書和遊覽提高知識和雅趣。

《山中日記》包括人文地理的內容。《山中日記》按照‘別有天地·明堂觀念，提起人間活動和山水地勢的影響關係。《山中日記》記錄了石刻·傳說·故事·風聞·寺刹·書院·民家·浮屠等人文地理的內容，是一種對山水自然的人文景觀的解釋。

《山中日記》沿用了柳宗元·陸游·徐霞客的日記體遊記的表現方法。沒有

對山水自然的感情過度，抑止對自然景觀的描繪美麗，集中地記錄遊覽旅程.

【主題語】

산중일기, 유기, 유람문화, 인문지리, 명말청초

山中日記, 游記, 遊覽文化, 人文地理, 明末清初

Diary in the Mountain, travel prose, sightseeing culture, human geography, Late Ming Dynasty and early Qing Dynasty, late Joseon Dynasty

투고일: 2016. 4. 14 / 심사일: 2016. 4. 20~5. 5 / 게재확정일: 2016. 5. 15